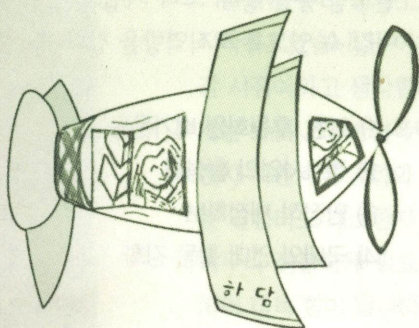


나눔터

2004·봄

제46호



2●2004년 사업목표 및 사업내용

3●여는글

4●뭔다! 상담소

8●여기는 상담실 | 2003년도 상담현황

16●열린터 이야기 | 열린터를 떠나며...

18●하담이야기 | 하담비행은 시작되었습니다.

20●나눔터 기획 I | 성폭력 특별법, 변한 것과 변해야 할 것

26●나눔터 기획 II | 성폭력 생존자들의 아주 특별한 용가-1회 생존자 대회를 마치고

31●나눔터 학술 I | 강간사건을 다루는 법원의 남성중심적 사고

38●나눔터 학술 II | 치통과 성폭력 고통 - '성폭력의 기준'에 대한 단상

43●나눔터 인터뷰 | 200만원의 끝까지 않은 여행

45●아웃집 놀러가기 | 새삶을 일구는 사람들의 자립지공동체

47●당신을 만나는 기쁨 | 반갑습니다. 열린 마음의 활동가가 되었습니다.

49●서평 | 이야기해 그리고 다시 살어나

51●성문화 돌아보기 | <여섯 개의 시선>을 바라보는 '나의 시선'

53●아낌없이 주는 나무



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
KOREA SEXUAL VIOLENCE RELIEF CENTER

● 주소 :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66-24 2층 ● 사무전화 (02)338-2890~2 ● 팩스 (02)338-7122 ● E-Mail : ksvrc@korea.com

● 전화상담 : (02)338-5801~2 성폭력 피해 생존자 단기보호시설 열림터 입소문의 (02)338-3562/Fax (02)338-1007

성폭력 피해 생존자 자립지공동체 하담 입소문의 (02)338-3563

● 인터넷상담 : ksvrc@chol.com ● 홈페이지 : http://www.sisters.or.kr



이미경 (본 상담소 소장)

새봄이 왔습니다.

지난 한 해 우리 상담소는 여러분들께서 애정어린 관심과 참여를 해 주신 덕에 생존자들의 든든한 지원자로, 그리고 우리사회의 성문화를 바뀌가는 활동들을 꾸준히 해올 수 있었습니다. 무엇보다 5000여회의 상담활동은 물론, 상담소 개소 때부터 하고자 했던 생존자 말하기 대회나 성폭력근절을 위한 남성 서포터즈 활동을 실시했습니다. 그리고 상담일지 분석을 통한 2차피해 연구사업 등 새로운 사업도 진행되어 다소 과중한 일정으로 힘은 들었어도 한편으로는 크게 힘을 낼 수 있었던 한 해였던것 같습니다. 특히 후반기에는 소중한 가치와 활동을 담아낸 6권의 자료집이 발간되어 우리의 활동을 외부와 공유할 수 있고, 기록으로도 잘 보존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.

올해는 우리 상담소가 개소한지 만 13년, 이제 바야흐로 청소년기 시대를 시작하고있습니다. 이제 정말 길게 호흡하며, 반성폭력 운동의 방향을 찾아갈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 여정은 좁게는 우리 상담소의 역사이지만, 넓게는 우리나라 반성폭력운동의 역사이기도 합니다. 2004년 우리 상담소는 생존자 지원체계 강화와 조직역량 강화를 활동목표로 정했습니다. 더욱이 올해는 열림터도 개소한지 10년이 되었고, 또 그동안 열림터 식구들이 퇴소할 때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했던 생존자 자립공동체인 중간집 “하담”을 개소하게 되어 더욱 힘이 납니다.

그리고 우리 상담소의 온 가족이 이 운동의 의의와 보람, 사명감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작년에 이어 다양한 참여프로그램도 마련하겠습니다. 올 봄엔 회원 한마당 축제로 봄 소풍과 스터디모임, 등산모임, 영화감상모임 등 다양한 회원소모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. 그리고 NGO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정부 정책의 모니터링과 비판, 제언활동, 그리고 재정자립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. 무엇보다 열림터와 하담의 식구들이 더 행복한 한해가 되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.

여러분들의 지혜와 참여, 격려에 힘입어 올해도 행복하게 활동해 가겠습니다.

